

대학 창업교육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경력준비행동 및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정경희 (동국대학교 기술창업학과)*

성창수 (동국대학교 기술창업학과)**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경력개발 및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해보았다. 이에 창업교육 이수 집단과 미이수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준비행동이 기업가적 경력의도 형성에 유의미한 역할의 수행여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창업교육집단에서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경력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창업교육 이수 집단과 미이수 집단 모두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력준비행동이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창업교육집단에서 더욱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력준비행동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적 경력의도 간의 관계에서 창업교육 이수 집단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창업교육의 효과로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경력의도의 영향관계를 고찰하였으며, 창업 및 취업준비에 있어 창업교육의 효과와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주제어: 창업교육,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경력준비행동, 기업가적 경력의도

1. 서론

청년 실업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청년창업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기존 기업의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유망 창업기업은 기존 기업 대비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4).

이에, 최근 정부(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는 잠재적인 청년창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2013년 9월 ‘대학창업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창업교육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구축을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 및 대학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창업 또한 취업의 일환으로 대학에서도 취업을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독려하고 있다. 창업교육의 효과와 중요성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Liñan et al., 2011; Davey et al., 2011).

하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졸업 후 전통적인 경력 선호 경향으로 자신의 경력선택에 있어 창업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창업을 경력의 한 분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창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창업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또 하나

의 경력 설정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양준환, 2014). 취업 활성화를 위한 경력개발 교육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학 교육과정은 아직까지 체계가 미흡하며, 대학시기에 준비해야 하는 경력개발 초기단계 준비 수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성희진·나승일, 2012).

대학 창업교육의 목표는 잠재적인 청년창업가 발굴과 함께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생각을 함께하는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적 활동(Entrepreneurial Activity)을 통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체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창의인재 양성 교육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실제 대학 교육 현장의 경력적 관점에서도 창업교육을 이수한 우수한 학생들은 경력준비행동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창업활동(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인턴십 등)의 참여를 통해 졸업 후 진로선택에서 창업만이 아닌 대다수 취업을 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학생들의 진로설정을 위한 경력개발 교육 관점에서 창업교육과 경력개발 간의 관계에 관한 규명이 필요하다.

대다수 창업교육 관련 실증 연구를 살펴보면, 창업의도의 선행요인으로 TPB 모델을 적용한 창업의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로 설명되고 있다(Maresch et al., 2016).

창업교육은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김상수 외,

* 제 1저자, 동국대학교 대학원 기술창업학과 박사과정, heemiso@dongguk.edu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 대학원 기술창업학과 교수, redsun44@dongguk.edu

· 투고일: 2016-07-10 · 수정일: 2016-08-18 · 게재확정일: 2016-08-24

2014). 이러한 창업교육의 중요성에도 창업교육과 학생들의 경력개발 및 취·창업 준비활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한정희·조건,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설정을 위한 경력준비행동,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Self-Efficacy)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살펴보면 주어진 특정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설명된다(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의 개인적인 개인 인지를 기반으로 믿음에 대한 자기 내면의 생각을 반영하여 후천적인 학습경험에 의해 형성되며(Bandura, 1997), 반복적인 성과와 숙달된 경험으로 과업달성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성장될 수 있다(양준환, 2014). 이처럼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특정 직업에 대해 높은 자기효능감은 그 직업에 대해 강한 신념 및 특별한 행동을 수행한다(Bandura, 1997).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에서 Lent et al.(1994)는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의 인지, 학습, 환경, 결과기대, 목표, 행동 등의 상호작용으로 개인이 스스로 진로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진로인간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자기효능감 이론은 진로와 직업분야로 넓게 적용되고 있다(Hackett & Betz, 198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설명되고(Taylor & Betz, 1983), 자신이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나 진로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의 준비도이다(김중운·박성실, 2013).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미래의 경력을 결정하고 수행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며(정진철 외, 2012), 학생들의 진로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Moynihan et al., 2003; 조성연·문미란, 2006).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생들의 취업을 포함한 경력기회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서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경력준비행동과 창업을 포함한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2.2 경력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

경력이란 한 개인 인생 전반의 경험 및 행동과 관련되며, 특정 경험과 관련된 행동은 미래 경력의 행동과 태도로 연계된다(Grzeda, 1999).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특정태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로서 특정행동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와 그 결과에 대해 자신이 부여하는 가치로 설명되고 있다.

경력준비행동이란 개인의 인지적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으로, 개인이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한 노력의 정도와 경력목표를 위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충실히 행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임효창·윤현정, 2012).

김봉환(1997)은 경력준비행동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과 성격, 적성에 대해 스스로의 정보 수집을 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조직에 대한 취업방법과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교재나 장비를 수집하는 행동이다. 셋째,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성희진·나승일(2012)는 경력준비행동이란 스스로 결정한 경력목표달성을 목적으로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한 개인이 구체적으로 기울이는 행위적인 노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력준비행동은 개인의 경력목표달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게 행해지는 실제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행동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김중운·박성실, 2013).

2.3 기업가적 경력의도(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일반적으로 경력(Career)이란 직업에 대한 평생 연속적인 사건 또는 조직 내 진급에 관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의도(Intention)는 수단으로서 어떠한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경로, 구체적인 목표를 직접적으로 지향하는 마음의 상태로 정의되어 진다(Bird, 1988).

기업가적 경력(Entrepreneurial Career)은 기존 조직의 전통적인 의미의 경력과는 다르다(Lau, 2002). 하지만 경력 관점의 창업은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기업가적 경력은 역할과 관련된 평생의 연속적인 사건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Sondari,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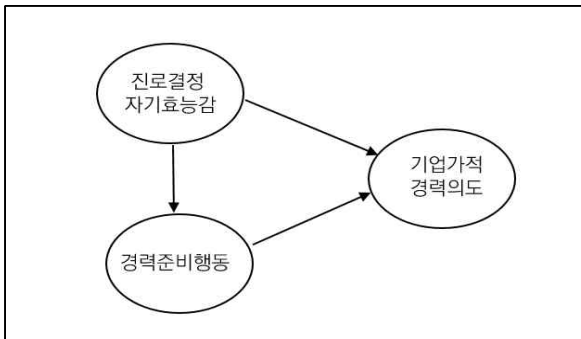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기업가적 경력을 하나의 요인 또는 다 른 구성개념을 지원하는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대부분 기업가적 경력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Ahmed et al., 2010). 구체적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기업가적 성향을 개인적인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또는 상황적 요소보다 창업의도를 통해 설명되고 있다(Krueger et al., 2000). 이는 현대사회의 경력관점에서 창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Geldereen et al., 2008), 기업가적 경력은 창업의도의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Sondari, 2014). 하지만 이는 폭넓은 의미의 경력관점에서 창업을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하기 위한 의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진로선택에서 창업은 스스로 고용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경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Barnir et al., 2011; Beeka & Rimmington, 2011). 이와 같이, 창업은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선택에 있어 다양한 직업군 중 하나로

보다 폭넓은 경력범위의 확대로 설명할 수 있다(Fatoki,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경력의도를 전통적인 경력범주에 창업을 하나의 경력으로 포함하여, 자신의 삶에서 창업을 비롯한 직업으로서 구체적인 목표의 성취를 위해 종사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로 정의하였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창업교육 이수 집단과 미이수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준비행동이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기업가적 경력의도를 설정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창업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가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3.1.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적 경력의도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경력선택, 경력선택, 경력행동을 설명하는 경력이론 연구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Betz & Hackett, 1981, 1983; Eccles, 1994). 자기효능감과 직업선택의 관계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다(Bandura et al., 2001). 그러나 대다수 연구는 창업에 대한 특별한 경력 선택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Wilson et al., 2007).

자기효능감과 경력 선호도 간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기업가적 경력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보다 적극적인 행동과 아이디어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된다(Krueger et al., 2000; Wang et al., 2002).

Boyd & Vozikis(1994)는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적 경력의도와 후속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력개발 초기단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높은 기업가적 경력의도를 가진다. 또한 높은 자기효능감과 높은 경력의도는 자신의 삶에 있어 기업가적 행동 또한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적 경력의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준비행동

경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개인적 성향, 가치관, 태도, 자기효능감 등이 경력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기학·이학주, 2000; 김태석·이기학, 2012; 한주원, 2013; 김명희·최용용, 2014).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경력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손은령·손진희, 2005).

Lent et al.(1994)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결정 과정을 개인의 인지, 환경, 행동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과정으로 설명하는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개인 스스로 진로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준비행동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논리는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 TPB)에서 도출할 수 있다(Ajzen, 1991). TPB는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의 세 가지 요인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지각된 행동통제는 자기규제로서 지각된 자기효능감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Ajzen, 1991). 이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경력준비행동의 선행요인으로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준비행동 간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경력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경력준비행동과 기업가적 경력의도

경력준비행동은 경력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실천적 행동의 대표적인 요인으로 설명된다. 자신의 경력과 관련한 인지나 정서적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으로 합리적이고 올바른 경력결정을 위한 행동과 경력결정을 한 이후에 결정사항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봉환, 1997).

경력준비행동은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의 지각된 태도이며, 이는 특정행동에 의해 나타난다. 경력준비를 위한 행동으로는 관심 및 목표 경력을 위한 계획 및 탐색과정으로 교육 및 훈련, 인턴쉽, 자격증 취득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력준비행동은 취업성과와 관련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정진철 외, 2012). 한정희·조건(2014)의 연구에 따르면, 경력준비행동은 대학생들의 취업은 물론 창업의도 및 실행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력준비행동과 기업가적 경력의도사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 경력준비행동은 대학생의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4. 경력준비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적 경력의도 간의 매개효과

경력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행동 및 행동의도와 유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Bird, 1988 ; Boyd & Vozikis, 1994), 취업을 대신한 창업의 선택, 끈기, 효과성 등에 대한 예측 및 기업가정신을 설명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개념으로 설명된다(양준환, 2014). 또한 경력준비행동은 대학생들의 취업은 물론 창업의도 및 실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한정희·조건, 2014). 이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적 경력의도 형성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경력준비행동은 그 관계에 있어 매개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 경력준비행동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적 경력의도 사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와 측정도구는 국내·외 선행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 적합하게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로, ‘매우 그렇다’를 5로 점수한 리커트 5점 척도의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2.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또는 진로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준비도를 의미한다(Betz, 1992). 이를 위해 Taylor & Betz(1983)에 의해 개발된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DMSES)를 토대로 Betz et al.(1996)에 의해 수정된 단축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DSE-SF)와 이은진(2002)의 연구에서 번안한 척도를 토대로 본 연구에 적합하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3.2.2. 경력준비행동

경력준비행동은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실천적 행동의 대표적 요인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으로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한 행동과 진로결정을 한 이후에 결정사항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봉환, 1997). 이를 위해 김봉환(1997)이 개발한 척도를 기초로 경력준비행동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3.2.3. 기업가적 경력의도

기업가적 경력의도는 경력 범위 안에 창업 경력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Wilson et al., 2007). 이를 측정하기 위해 Wilson et al.(2007)의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를 기초로 사용하였다. 각 변수의 측정항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측정항목

변수	문항	측정문항	선행연구
경력준비 행동	A1	관심직업이나 진로분야 자격요건 검색	Taylor, Betz(1983) Betz, et. al.(1996) 이은진(2002) 정미경(2015)
	A2	관심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인터넷 자료 검색	
	A3	진로목표(취업,창업,진학)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	
	A4	관심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	
	A5	관심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팸플릿 구입	
	A6	관심직업이나 진로분야 종사자와 대화	
	A7	관심진로에 대한 주간집단 영향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B1	나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안다	Blasi(1980) 김봉환(1997) 정미경(2015)
	B2	관심전공 및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B3	처음 선택한 전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바꿀 수 있다	
	B4	나에게 맞는 직업에 관련된 기관 및 기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기업가적 경력의도	X1	창업(사업을 시작하는 것)	Wu & Wu(2008) Wilson et al., (2007)
	X2	기타 다른 관심 경력 선택	

3.3 자료와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D 대학의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시간은 2016년 4월 14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진행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총 360부 중 일부 답변에 응답하지 않아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되는 설문지 27부를 제외한 33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의 자료처리를 위해 코딩작업을 실시하였고 입력된 데이터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4.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들의 성별, 학년, 창업경험, 소속 선택에 대한 빈도 및 퍼센트 확인 결과, 남자는 207명으로 전체 표본의 62.2%를 차지하고, 여자는 126명으로 37.8%, 학년별로는 4학년이 전체 응답의 116명(34.8%)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3학년 75명(22.5%), 2학년 62명(18.6%), 1학년 80명(24.0%)로 나타났다. 그중 창업 강좌 수강경험은 있다 208명(62.5%), 없다 125명(37.5%)로 나타났다. 창업경험은 47명(14.1%)로 나타났다며, 공학계열이 148명으로 전체 표본의 44.4%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이어 인문·사회계열 109명(30.9%), 경영·경제 계열 65명(19.5), 예체능 계열 17명(5.1%)의 분포를 보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일반적 분석 결과

	항목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	207	62.2
	여	126	37.8
학년	1학년	80	24.0
	2학년	62	18.6
	3학년	75	22.5
	4학년	116	34.8
창업교육 강좌이수	있다	208	62.5
	없다	125	37.5
창업 경험	있다	47	14.1
	없다	286	85.9
단과대학 소속	인문, 사회 계열	103	30.9
	경영, 경제 계열	65	19.5
	공학 계열	148	44.4
	예체능 계열	17	5.1
합계		333	100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설문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계수가 탐색적 연구분야의 경우 0.6 이상이면 수용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Nunnally, 1978), 부적합한 변수들을 제거하고 남은 변수들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신뢰성 분석 결과

변수	최초 문항수	최종 문항수	최종 크론바흐 알파 계수
경력준비행동	7	7	.84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	3	.779
기업가적 경력의도	2	2	.685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측정항목에 대해 직각회전(Varimax Rot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들은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고유값(Eigen Value)이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요인 분석 결과

항목	1	2	3
경력준비행동1	.719		
경력준비행동2	.709		
경력준비행동3	.737		
경력준비행동4	.750		
경력준비행동5	.675		
경력준비행동6	.687		
경력준비행동7	.57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		.84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2		.84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4		.615	
기업가적 경력의도1			.636
기업가적 경력의도2			.770
고유값	3.748	2.207	1.534
%분산	28.828	16.975	11.803
%누적	28.828	45.803	57.606
Kaiser-Meyer-Olkin 표본적합도			.846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근사 카이제곱			1567.452
자유도 (유의수준)			78(.000)

4.3 상관관계분석

각 변수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정도를 알아보고자, 앞서 신뢰성 분석과 요인 분석으로 최종 확인 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상관관계 분석 결과

		경력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기업가적 경력의도
경력준비행동	Pearson 상관계수	1	.476**	.42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Pearson 상관계수	.476**	1	.321**
기업가적 경력의도	Pearson 상관계수	.428**	.321**	1

*p<0.05, **p<0.01, ***p<0.001

4.4 분석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49.767(df=15)$, $\chi^2/DF=3.318$, GFI=.965, AGFI=.915, RMR=.049, RMSEA=.084, CFI=.962로 모든 지표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나 연구 개념들 간 가설관계를 설명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Bagozzi & Yi, 1988).

<표 6> 경로분석에 의한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창업교육집단 N=208		창업미교육집단 N=125	
		경로계수	C.R	경로계수	C.R
H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기업가적 경력의도	.181	2.669**	.155	1.530
H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경력준비행동	.452	7.298***	.527	6.901***
H3	경력준비행동 → 기업가적 경력의도	.380	5.599***	.193	1.917

*p<0.05, **p<0.01, ***p<0.001

먼저 <표 6>과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1은 창업교육 이수 집단에서는 채택되었지만(Estimate=.181, C.R.=2.669, P<.01), 창업교육 미이수 집단에서는 기각되었다(Estimate=.155, C.R.=1.53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경력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2는 창업교육 이수 집단에서는 채택되었고(Estimate=.452, C.R.=7.298, P<.001), 창업교육 미이수 집단에서도 채택되었다(Estimate=.527, C.R.=6.901).

경력준비행동이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 한 가설 3은 창업교육 이수 집단에서는 채택되었지만(Estimate=.380, C.R.=5.599, P<.001), 창업교육 미이수 집단에서는 기각되었다(Estimate= .193, C.R.=1.917).

경력준비행동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적 경력의도 사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에 의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창업교육 이수 집단에서는 경로계수 .172로 유의적인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나, 창업교육 미이수 집단에서는 경로계수 .102로 유의적인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력준비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경력준비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가설	경로	창업 교육	창업 미교육
		경로계수	경로계수
H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경력준비행동 →기업가적 경력의도	.172**	.102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대학 창업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준비행동이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 이수 집단과 창업교육 미이수 집단으로 구분하여 가설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다.

첫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 이수 집단이 미이수 집단보다 유의적인 영향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창업교육에 의해 기업가적 경력의도로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경력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 이수 집단보다 창업교육 미이수 집단에서 경로계수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경력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창업교육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경력준비행동은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유의적인 영향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는 경력준비행동은 창업교육을 통해 기업가적 경력의도로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경력준비행동을 거쳐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창업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준비행동에 있어 기업가적 경력의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경력준비행동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로 교육학과 심리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을 주목하여, 본 연구

에서는 창업학 관점에서 기업가적 경력의도의 영향을 주는 추가적인 원인변수로 적용하였다. 또한 기존 창업학에서 주로 연구되었던 주요 변수인 창업의도의 확대된 개념으로 진로선택의 취업까지 고려한 기업가적 경력의도를 적용하였다.

둘째, 기존 선행연구는 주로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의 효과로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경력의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창업교육 이수과 미이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창업교육은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해 보다 진취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진로선택에서 비단 창업만이 아닌 실제 취업준비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있어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대학차원의 창업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확대 및 창업교육 콘텐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적으로 기업가적 경력실행이 아닌 경력의도를 다루었다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기업가적 경력의도가 양질의 창업 및 취업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실제 학생들의 졸업 후 추적조사를 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가적 경력의도가 궁극적으로 기업가적 경력실행으로 연계되는 세부 메커니즘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시도된 창업교육 이수여부의 구분에서 더 나아가 향후 연구에서는 창업교육프로그램의 단계별 수준별 학습목표 및 참여전공 등 다양한 환경요인들을 고려한 보다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 소재 1개 대학의 학생들의 표본에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 소재 또는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

김명희·최용웅(2014). 일반계 여고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진로포부를 매개로, *진로교육연구*, 27(1), 83-107.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상수·김영천·이지형(2014). 경영시뮬레이션게임 교육과 창업교육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영교육연구*, 29(5), 117-146.

김종운·박승실(2013).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6(3), 123-41.

김태석·이기학(2012).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3(4), 123-141.

성희진·나승일(2012).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력개발역량과 경력탐색 활동 및 대학 경력개발지원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1), 83-108.

손은령·손진희(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 사회인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이기학·이학주(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은진(2002).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4(3), 621-636.
- 양준환(2014). 기업가정신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과 창업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6), 65-77.
- 임효창·윤현정(2012). 대학생의 경력관리 컨설팅을 위한 경력준비활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12(2), 155-172.
- 정미경(2015).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간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1(3), 85-106.
- 정진철·이승일·박민경(2012). 대학생의 전공몰입이 진로탐색효능감과 직업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27(3), 229-250.
- 조성연·문미란(2006). 성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8(4), 731-748.
- 한정희·조건(2014). 대학생들의 경력개발과 관련된 계획된 행동들이 창업실행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1), 111-118.
- 한주원(2013). 비서학전공 전문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비서학논총*, 22(2), 117-140.
- Ahmed, I., Nawaz, M. M., Ahmad, Z., Shaukat, M. Z., Usman, A., Rehman, W. & Ahmed, N.(2010). Determinants of Students'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 Evidence from Business Graduat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15(2), 14-22.
- Ajzen, I.(1991).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Bagozzi, R. & Yi, Y. J.(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US: Prentice Hall.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H. Freeman and Company.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 Pastorelli, C.(2001). Self-efficacy beliefs as shapers of children's aspirations and career trajectories, *Child Development*, 72(1), 187-206.
- Barnir, A., Watson, W. E., & Hutchins, H. M.(2011). Medi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in the Relationship Among Role Models,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and Gende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1(2), 270-297.
- Beeka, B. H. & Rimmington, M.(2011). Entrepreneurship as a career option for African youths, *Journal of Development Entrepreneurship*, 16(1), 145-164.
- Betz, N. E.(1992). Counseling uses of career self-efficacy theory,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 22-26.
- Betz, N. E. & Hackett, G.(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men and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5), 399-410.
- _____ (1983). The relationship of mathematics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the selection of science-based college maj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3(3), 329-345.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 Blasi, A.(1980). Bridging moral cognition and moral action :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8(1), 593-637.
- Boyd, N. G. & Vozikis, G. S.(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63-77.
- Cho, S. Y. & Moon, M. R.(2006). The Effectiveness of a Career Counseling Program for Nontraditiona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4), 731-748.
- Chung, M. K.(2015).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relation of University's Career Barrier and Career Decision,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1(3), 85-106.
- Davey, T., Plewa, C. & Struwig, M.(2011). Entrepreneurship perceptions and career intentions of international students, *Education Training*, 53(5), 335-352.
- Eccles, J.(1994). Understanding women's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choic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4), 585-609.
- Fatoki, O. O.(2014).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South Africa: The Influence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Previous Work Experience, *Mediterran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5(7), 294-297.
- Geldereen, M. V., Brand, M., Praag, M. V., Poutsma, E. & Gils, A. V.(2008). Explain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by mean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13(6), 538-559.
- Grzeda, M. M.(1999). Re-conceptualizing career change ; A career development perspective,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4(6), 305-311.
- Hackett, G. & Betz, N. E.(1981). Self-efficacy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an, J. H. & Cho, G.(2014).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r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Theory of Planned Behavio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1), 111-118.
- Han, J. W.(2013). Social Support and Career Identity Influ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22(2), 117-140.
- Jung, J. C., Lee, S. I. & Park, M. K.(2012). The Effects of Academic Major Commitment, Job Search Efficacy on the Job Search Behavior,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Research*, 27(3), 229-250.
- Kim, B. W.(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Docto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S. S., Kim, Y. C. & Lee, J. H.(2014).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Start-up Education and Business Simulation Game,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29(5), 117-146.

- Kim, J. U. & Park, S. S.(2013).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6(3), 123-141.
- Kim, M. H. & Choi, W. Y.(2014).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General Female High School Stud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outcome expecta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Aspir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1), 83-107.
- Kim, T. S. & Lee, K. H.(2012).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 between Narcissism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College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3(4), 123-141.
- Kruege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 411-432.
- Lau, P. V.(2002). *Developing and validating the entrepreneurial career success scale and testing it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in the context of Southeast Asian values*, Doctoral dissertation,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 Lee, E. J.(2002). Effects of the career-planning group counseling for multi potential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3), 621-636.
- Lee, K. H. & Lee, H. J.(2000). The effects of career self-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1), 127-136.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monograp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Lim, H. C. & Yoon, H. J.(2012).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an undergraduate,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12(2), 155-172.
- Liñan, F., Rodriguez-Cohard, J. C. & Rueda-Cantuche, J. M.(2011).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levels, a role for educati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Management Journal*, 7(2), 195-218.
- Maresch, D., Harms, R., Kailer, N. & Wimmer-Wurm, B.(2016).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tudents in science and engineering versus business studies university program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04, 172-179.
- Moynihan, L. M., Roehling, M. V., LePine, M. A. & Boswell, W. R.(2003).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ship among job search self-efficacy, job interview, and employment outcomes,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18(2), 207-233.
- Nunnally, J. C.(1978). *Psychometric theory(2nd ed.)*, New York : McGraw-Hill.
- Sondari, M. C.(2014). Is Entrepreneurship Education Really Needed? : Examining the Antecedent of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15, 44-53.
- Son, E. Y. & Son, J. H.(2005). The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2), 399-417.
- Sung, H. J. & Na, S. I.(2012).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Career Development Supports of Senior Students in Universitie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4(1), 83-108.
- Taylor, K. M. & Betz, N. E.(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Wang, C., Wong, P. & Lu, Q.(2002). *Tertiary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Wilson, F., Kickul, J. & Marlino, D.(2007). Gend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3), 387-406.
- Wu, S & Wu, L.(2008). The impact of higher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in China,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5(4), 752-774.
- Yang, J. H.(2014).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motiv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6), 65-77.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Jung, Kyung Hee*
Sung, Chang S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Empirical study was conducted using survey questionnaires for university students and analyzed employ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technique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as positively related to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group, and the impac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howed a positive effect on both groups whether entrepreneurship education grou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fluence on the degree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were more positive impact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group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significa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ie strength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Keywords: Entrepreneurship Educati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 (First author) Doctor's course Dept. of Technology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in Dongguk University, heemiso@dongguk.edu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Technology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in Dongguk University, redsun44@dongguk.edu